

중국의 방직 산업 – 연해에서 내륙으로 옮겨

중국 방직 공업 협회(中國 紡織 工業 協會)의 조사에 의하면, 2008년에 장쑤(江蘇), 저장(浙江), 산둥(山東), 광둥(廣東), 푸젠(福建), 허베이(河北) 등의 6개성(省) 방직 산업 중에서 2/3의 기업의 평균 이익률이 불과 0.62%였다. 전례가 없는 강압을 받으며, 연해에서 내륙으로 방직 산업이 단계적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 방직 산업의 평균 이익률 0.62%로 충격 받아

인민 위안(人民 元)이 오르고, 토지 등의 자원과 에너지 제품이 폭등하여 기업의 원재료 가격과 노동 코스트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광범위한 수출세 환부율(輸出稅 還付率)이 낮아지거나 철폐되고, 중국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의 소득세율이 통일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쑤, 저장, 광둥 등의 저부가 가치(低附加 價值)·노동 집약형(勞動 集約形)의 재래형 방직 산업은 공전절후(空前絶後 : 前無後無)의 압박을 받고 있다.

“지금만을 살펴보면 많은 해외 바이어는 중국 섬유 제품의 값이 오른 것을 받아들여,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대규모의 주문을 바꿔버리는 현상은 없다.”고 중국 사회 과학원 공업 경제 연구소(中國 社會 科學院 工業 經濟 研究所)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그 원인을 “중국은 세계 제 1의 섬유 제품 어패럴 수출국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중국의 수출용 생산량을 바꾸어 공급할 수가 없다. 또한 기업의 부품 생산, 양산(量産), 노동자의 숙련도, 생산 기술 등에서 중국

은 여전히 강점을 갖고 있으며, 베트남, 방글라데시(Bangladesh), 파키스탄(Pakistan), 인도 등에서는 이와 같은 강점을 쉽게 카피할 수는 없다.”와 “중국에서는 생산 코스트가 올랐다고, 과거에 일본이 노동 집약형 산업을 모두 생산 코스트가 낮은 나라인 한국으로 옮긴 것처럼 할 수는 없다. 이는 하이테크 산업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노동 집약형 산업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 가격 요소가 올라도 생산 코스트 다운(생산 cost down)의 활로를 찾아내기를 원한다.”로 분석하고 있다.

◎ 연해에서 주문을 받고, 내륙에서는 생산

“베트남, 인도 등은 중국 중서부보다도 인건비가 싸고 중서부에서는 옮겨오는 산업을 받아들이는 모양이 되는데, 내륙으로 옮기기로 정한 기업은 동부 기업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효과적으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여 주는 보족 방식(補足 方式)이 되겠다.”고 국가 정보 센터 경제 예측부(國家 情報 center 經濟 豫測部)에서는 말하고 있다.

중국의 동부와 내륙은 문화 환경과 법 제도가 비슷하다. 그래서 동부의 방직 기업에게는 투자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내륙에서는 소비재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어, 거대한 시장 수요가 투자자 측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을 내륙으로 옮김으로써, 외수(외국으로부터의 수요)를 채워 줄 수도 있고, 내수(국내의 수요)를 돌봐 줄 수도 있다.

20년 전에 중국에서는 국제 시장으로 수출한 해외 주문과 연해부에서 의류 제품을 가공하는 산업 경영 모델(産業 經營 model)이 확립되었다. “앞으로는 연해부에서 주문을 받아 내륙에서 가공하는 방식으로, 내외 시장이 모두 윈윈(win-win)의 관계가 되는 새로운 타입의 의류 제품 산업 경영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다.”고 경제 예측부에서는 말하고 있다.

◎ 산업을 옮기는 데는 과학성이 필요

내륙 지방에서는, 연해부로부터 방직 기업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옮겨오는 산업을 받아들이면서도, 토지 자원과 인건비의 우위성, 환경 용량의 크기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은, 중국 경제의 발전을 보면, 중서부(中西部)에서는 더욱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외에 생태 보호(生態保護)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 계획이 없이 추진하여, 토지, 자원(資源), 생태 및 인건비 등을 받아들일 능력에 관계없이, 이들 면에서의 우위성을 과장하면 국제 이전을 잘못 받아들였던 동부의 두 번째 실수가 된다.”고 국무원 발전 연구 센터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동부는, 발전 초기에 필요한 구속과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나 환경 코스트 등에는 어쩔 수 없는 과제가 남아 있다.

“중서부는, 앞으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전하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필요가 있다. 옮겨오는 산업을 받아들이면서도, 과학적 발전관(發展觀)도 검토하면서, 무계획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옮겨 오는 산업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전 연구 센터에서는 제안하고 있다.

◎ 산업 체제는 꼭 만들어야

“연해에서 내륙으로 옮겨오는 방직업의 현 상태에 대하여, 산업 발전이란 몇 개의 공장을 집중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 넷(産業 net)을 만들고 특히 관련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 옮겨오는 방직 산업을 받아들이는 것은, 간단하게 몇 개 제조업 공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산업 시스템(産業 system), 산업에 필요한 중요 서비스 기능(重要 service 機

能) 바로 그 자체부터 산업 전체의 이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발전 연구 센터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발전 연구 센터에서는 “먼저 집약형으로 발전하고, 산업 파크(産業 park)에 의존하면서 토지 자원을 합리적이며, 집약적으로 이용하여 가급적 빨리 산업 규모를 크게 늘린다. 클러스터를 크게 키워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각종 방식을 채용하여, 산업을 옮기는 데 따른 자원을 통합하는 플랫폼(flat form)을 제공한다. 동부의 발전 현상을 보면, 산업의 업·그레이드(up·grade)와 산업 클러스터가 발전하는 데에 있어, 전문 시장에 의존하는 자본화 시프트(자본화 shift)의 프로세스(process)가 있다. 기업의 상장(上場 : 주식의 거래소 등록), 벤처(venture) 자본의 투자(投資), 매수 합병 등으로 규모를 확대시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다. 자본 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중서부의 자원을 빠르게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환경과 중견 기업에 의지하여 산업을 빠르게 옮긴다. 특히 동부나 국제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브랜드 기업(brand 企業)이나 중축(中軸)이 될 만한 기업을 선정한다. 그들의 직접 투자·협력, 매수 합병 등을 통하여 산업을 빠르게 옮길 필요가 있다.”고 발전 연구 센터에서는 제안하고 있다.♣